

전져주시는 하나님 [2]

1.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 (4:17~31)

1) 사명 감당의 길에 들어선 모세(18~26)

(1) 모세는 그의 장인 ()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애굽으로 떠난다.(18~20)

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신다.

② 모세는 ()를 잡고 처자식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향한다.

(2)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할 일을 명하신다.(21~23)

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.

②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죽음까지도 모세에게 이미 알려주신다.

③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 금방 출애굽이 성공하지 못 할 것임을 알려주신다.

(3) 모세의 할례(24~26)

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.

- 이는 모세가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에게 ()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

- 히브리 남자는 생후 8일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, 여행 중에 이를 넘긴 것 같다.

② 십보라가 ()로 아들의 할례를 행한다.

③ 십보라는 모세에게 “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.”라고 말한다.

- 히브리 남자의 할례의 관습에 대한 불평인 듯하다.

2) 아론을 붙여주시는 하나님(27~31)

(1)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할 것을 명하신다.(27~28)

① 아론은 ()에서 모세를 만난다.

②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과 이적을 다 알려준다.

(2)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한다.(29~31)

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한다.

②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을 살피셨음에 감사함으로 ()한다.

2.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. (5:1~23)

1) 모세의 1차 해방 요구(1~18)

(1) 모세와 바로의 대화(1~10)

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.

- “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()를 지킬 것이다.”

②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의 말을 한다.

- “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?”

- “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.”

- ③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한다.
- ④애굽 왕은 바로와 아론에게 이스라엘의 노역을 쉬지 말 것을 명한다.
- ⑤바로는 감독관들에게 명령하여 짚도 주지 말고, 같은 양의 벽돌을 생산하게 하라고 명한다.
- ⑥바로는 감독관들에게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하여 엉뚱한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한다.

(2)백성의 감독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학대한다.(11~18)

- ①감독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동일한 분량을 채우라고 명한다.
- ②백성들은 온 땅에 흩어져 곡초로 지푸라기를 대신하여 벽돌을 굽는다.
- ③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()을 겪게된다.
- ④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를 찾아갔으나, 피할 길이 없음을 알게 되어 낙심한다.

2)두 가지 원망(19~23)

(1)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.(19~21)

- ①“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.”
- ②“너희들이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다.”
- ③“여호와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.”

(2)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한다.(22~23)

- ①“어찌하여 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?”
- ②모세는 백성들의 학대가 심해진 것과 하나님의 구원이 더딘 것에 대해 원망한다.

3. 모세와 아론 (6:1~27)

1)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(1~13)

(1)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할 일을 알리신다.(1~5)

- ①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()로 알려주신다.
- ②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,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잘 기억하셨음을 말씀하신다.

(2)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알려주신다.(6~8)

- ①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건지실 것이다.
- ②여호와의 심판으로 애굽 백성들을 치실 것이다.
- ③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,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.
- ④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.
- ⑤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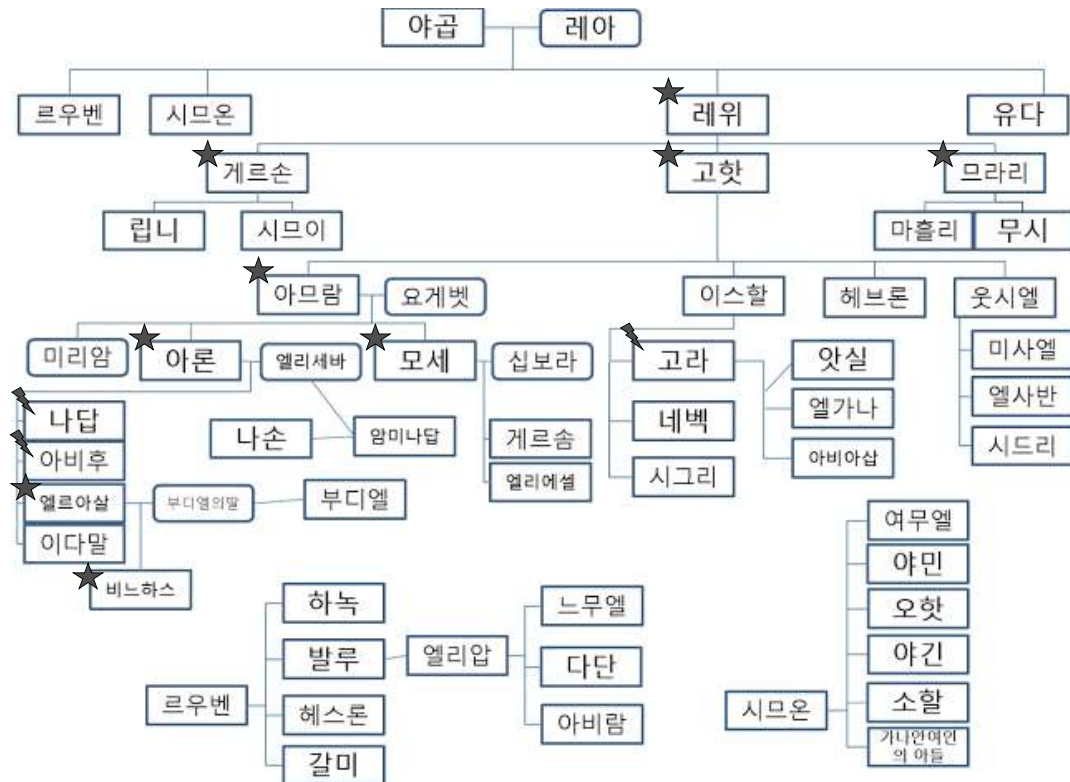
(3)이스라엘 백성들은 ()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.(9)

(4)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듭 사명을 맡기신다.(10~12)

- ①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하라 하신다.
- ②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데, 바로가 듣겠느냐며 항변한다.
- ③모세는 자신은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항변한다.

(5)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셔서,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다.(13)

2) 모세와 아론의 족보(14~27)



- (1) 레위의 세 아들 : 게르손, 고핫(그핫), 므라리
- (2) 고핫의 첫째 아들인 아브람의 자식들 : 미리암, 아론, 미리암
- (3) 아론의 아들 : 나답과 아비후(형별로 죽임을 당함), 엘르아살, 이다말
- (4)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함.
- (5)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도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함.

4.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 (6:28~7:13)

1)하나님과 모세의 대화(6:28~30)

- (1)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하신다.(28~29)
- (2)모세는 자신의 입이 둔하여 바로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대답한다.(30)
- (3)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고, 아론을 대언자로 삼으신다.(7:1~5)
 - ①내가 명한 바를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, 아론은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.
 - ②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라.
 - ③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보아도 바로는 마음의 ()으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.
 - ④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려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다.
 - ⑤그제서야 애굽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.
- (4)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한다.(6~7)

-당시 모세는 팔십 세였고, 아론은 팔십삼 세였다.

2)애굽에서 행한 첫 번째 이적 (8~13)

(1)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뱀의 이적을 행하라 명하신다.

①아론이 바로 앞에서 ()를 던지니 ()이 되었다.

②바로의 수하에 있는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였다.

③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.

(2)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.(13)

※성경암송 : 출애굽기 6:6~8